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주일학교 기금 마련 자모회 바자회

- 일시: 다음 주일(4월 6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입구
- 판매음식: 유부초밥, 김밥, 닭강정
- * 오늘 미사 후 주일학교 교실에서 유부초밥 용기를 나누어 드리니 유부초밥을 만드시는 분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최성인 안드레아, 최성우 크리스토퍼 어린이가 복사단 참가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 오늘 미사 후 사목평의회가 있습니다.

◆ 빈첸시오회 무료급식 봉사 안내

- 일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2시-1시 30분
- 장소: Faith Mission (599 E 8th Ave.)
- 봉사: 홀리스 무료급식 (매월 약 60명)
- 참여방법: 음식 준비 (7명), 배식 (6명)
-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 세실리아 자매님 (614-475-6366)에게 연락바랍니다.

◆ 세례, 견진 증명 서류가 필요하신 교우는 총무 김도형 바울리노 형제님에게 문의바랍니다.

◆ 김제준 구역 모임

- 일시: 4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구역장 자택 (614-214-2662)

◆ 친교 준비 봉사자

- 3월 30일: 김오경
- 4월 6일: 권혁제

◆ 4월 친교 후 정리 봉사: 황석두 구역

-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에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카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부활 제2주일 March 30, 2008



<성 토마스 사도의 의심>

루벤스 (1577-1640), 유화, 앙베르 미술관, 프랑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802.00
교 무 금	\$520.00
감 사 헌 금	\$100.00

- 교 무 금: 권혁제 이도근 하주영 박석현 김오경
- 감사헌금: 주상훈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사도행전 2, 42-47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화답송 ◎ 주님을 찬송하여라, 줄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후렴) 주님을 찬송하여라, 줄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서 베드로 1서 1,3-9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31
 “평화가 너희와 함께”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2주간 합계		합계	
김제준	단	명	1,180단	10명
이호영	405단	3명	7,915단	68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500단	4명	5,865단	60명
김효임	단	명	1046단	27명
학생 구역	10단	2명	10단	2명
미사 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915단	9명	2/22/04~3/23/08 (213주)	

♣ 총누계: 195,895단 12,652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3월 30일	4월 6일
해설자	고상식	김오경
독서/봉헌	김도형 박선경 정하상 구역	이호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십자가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444 ♫ 봉헌: 18
 ♫ 성체: 504 506 ♫ 파견: 141

행복하다고요?

안병철 베드로 신부, 서울대교구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
 예수님께서서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토마스에게 ‘행복’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알게 모르게 자문해 보는 핵심적인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신명나게 살아가게 하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원천이 바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한 올 한 올 뜯 때마다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며 만든 거랍니다.’ 신품 받은 지 3개월 남짓 된 제게 검은색 목도리를 전해 주며 말씀하신 분은 103세의 할머니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교외의 작은 성당에서 학생 신부로 있을 때 겪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본당에 머물러 살기 시작한 그 때부터 할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목도리를 뜨기 시작하셨답니다. 6개월의 작업 시간, 긴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교회의 노령화 현장을 목격해 오신 분이로서 동양에서 온 젊은 신부인 제가 무척이나 대견스러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나를 지탱해 주고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이었지요.’ 거침없이 쏟아 내신 그분의 말씀은 이제 갓 사제직의 삶을 시작한 제게 은총의 고귀함을 깨닫고 충실하게 살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오신 그분께 믿음은 삶이었고 행복과 희망의 근거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느님을 믿고 희망하며 살아오셨기에 노년기의 쓸쓸함과 외로움조차도 그분께는 삶의 행복을 살아가는 데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보물처럼 제 옷장에 자리하고 있는 검정색 목도리는 사제로서의 삶을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할머니의 기도와 바람을 제게 강렬하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토마스를 보면서 매순간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는 욕심과 욕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세기를 사시면서 하느님께 대한 의혹과 의구심의 순간을 수없이 겪으셨을 텐데도 하느님의 사랑과 믿음이 행복의 원천이요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할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았던 초대 교회 신자들은 그야말로 복음을 실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믿고 이성으로는 받아들이며 마음으로는 함께하면서도 실상 행동과 삶에 있어서는 부활의 진정한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국외자처럼 기웃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진정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과연 우리의 입으로 거침없이 토해 낼 수 있을까요?